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9. 18.(화) / 총5매(본문2)	
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정규철 ·☎ (044)201-3870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시외버스 다닌다..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19일 광화문에서 시승행사 열려...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교통안전공단(연구기획단) 등과 공동으로 9월 19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차량을 시승하는 행사를 열었다.
-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국내 최초 도입을 목표로 '17.4월부터 '19.9월까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을 개발 중이다.
 -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이용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성을 검증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 대상으로 예약·인적안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상업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로, 내년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하여 '19년 정부 예산안(교통약자 장거리 버스 지원)으로 13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 이번 시승행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인 개발차량에 대해 설명 및 시연하고, 홍보부스 등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시승행사에서는 휠체어 사용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성과 평가 그룹도 참여하여 휠체어 리프트 작동 상황 및 차량 내 휠체어의 고정장치 사용방식 등을 체험하였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심층 논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동 발표하였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와 전장연은 ‘17.11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하여 정부,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공동 발표문에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개발 중인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 오늘 시승행사를 통해 개선할 점 등도 확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 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 044-201-38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행사개요

□ 행사 개요

- (時 · 所) '18. 9. 19.(수) 10:00~12:00 / 서울 광화문광장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후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참석) 국토부 2차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 대한교통학회장,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등

□ 주요 내용

- (시승 행사) 휠체어 장애인 등의 차량리프트 이용, 시승 체험
 -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연구성과 평가그룹(20명) 참여
- (현장 홍보) 현장 홍보부스 설치, 탑승서비스 영상 상영 등
 - * 휠체어 탑승 버스의 이용방식, 일반시민의 배려 등 홍보영상 상영
 - * 장애인, 일반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서비스에 대한 의견조사
- (공동선언문 발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합의한 사항 공동선언
 -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제도개선 등 포함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시승회	10:00~11:00	60'	· 개회	· 사회자
			· R&D 소개	· 연구단장
			· 축하메시지	· 국토교통부 2차관, 내빈 등
			· 공동선언문 발표	· 교통안전복지과장
			· 문화공연	· 장애인 성악가(황영택)
			· 테이프커팅식	· 내빈
			· 휠체어 탑승버스 시승	· 장애인 단체 대표 등
			· 홍보부스 관람	· R&D 연구책임자 안내
체험 행사	11:00~12:00	60'	· 휠체어 탑승버스 체험	· 시승회 참석자 대상

참고 2 홍보 브로셔

2019년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됩니다.

함께가요! 행복여행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익명 (충청남도)

함께 하는 사회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 서민 (전라북도)

서민층 조금 더 친절히 도와주면
함께 할 수 있어 기뻐요!
- 김민 (충청남도)

장애인들 배려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신상이 되는 좋은 기회 같아요!
- 정민 (경기)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안전교육원

<p>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p>	<p>모두가 즐거운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추진됩니다</p>	<p>휠체어 탑승 이렇게 이용해주세요</p>
<p>영국 2000년 12월 이후부터 차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속버스인 내셔널 익스프레스사는 2018년 기준 약 6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p> <p>미국 미국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사는 1998~2001년 제작된 차량의 약 75%, 2001~2014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북미 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회사 제각각은 현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p> <p>호주 고속버스 업체 브라이언(Brian)이 2012년 12월 기준 전체 103대의 고속버스 중 56%(54%)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 <p>일본 2020년까지 전체 고속버스의 약 25%에 해당하는 2,500대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p>	<p>2018년 2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p> <p>2018년 9월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 시승행사</p> <p>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자 탑승을 위한 고속 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감시기능 개선 ▶ 버스 개조 및 투입될 시설 단계적 개선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의 도움을 통해 승강설비를 이용하여 휠체어 승객이 차량안으로 탑승합니다. ▶ 휠체어를 버스에 고정시킵니다. ▶ 버스 운행 중에는 가까운 곳의 승객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직지에 도착하면 일단 승객들이 내린 후 승강설비를 이용하여 휠체어 승객이 하차합니다.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입법정신과 「장애인 인권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등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은 교통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른 저상버스의 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재정지원 확대 등 책임 있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2.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차량)의 이용 불편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마련된 「표준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2019년 시행될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하여 법정대수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3.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 이용, 특별교통수단(버스)의 단체이동 지원 등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설치한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영을 '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며,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20년부터 적극 추진한다.
5. 교통정책 추진 시 원천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의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분야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2018. 9.19.

국토교통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